



60th Anniversary 전주대학교 개교 60주년



우리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개교 60주년 행사, 다 같이 즐겨요

지난 3월,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을 선두로 본격적인 개교 60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됐다. 교정 곳곳에 있는 봄꽃 명소를 즐길 수 있는 '봄꽃 축제', SNS에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 추첨하여 경품을 증정하는 '봄꽃 인증샷 이벤트'가 그 뒤를 순조롭게 이었다.

가장 가까운 행사로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야외상영'이 있다. 이번 상영은 4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전주씨네투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이 첫 시작이다. 우리 대학에서는 4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대운동장에서 진행하며, 사전공연과 무대인사, 영화 상영이 준비되어 있다. ▲ 4월 26일(금) 상영작: 찬실이는 복도 많지, 공연팀: 고니 ▲ 4월 27일(토) 상영작: 리바운드, 공연팀: 느린날

또한,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개방 축제'도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계 없는 문화의 별빛,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8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투어, 지역사회와 동행 발전의 기초 관계를 구축할 하늘정원 독서캠핑,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VR게임배틀 등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6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대학을 지지해 준 지역사회에 도서관의 자원을 환원하여 '공유와 개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행사의 의의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jj.ac.kr>)에 공지할 예정이며, 문의는 전주대학교 도서관(063-220-2160)으로 하면 된다.

5월 2일에는 JJ아트홀에서 진행되는 메인 행사인 개교 60주년 기념식과 발전기금 기부자 동판 제막식, 명예박사 수여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학생회관 로타리에서는 축하 주간 행사가

있다. 헌혈캠페인과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하며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CCM 콘서트도 진행된다. 또한 풋살장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총장배 풋살대회로 당일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60주년 기념행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5월과 6월,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박물관 특별 전시가 이에 해당한다. 1학기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별전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지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학 문화산업대학원 한지산업학과 졸업생(지역작가) 및 재학생이 제작한 한지 작품들로 채워질 기획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2학기에는 개교 60주년 및 호남기독교박물관 10주년을 맞아 우리 대학이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발전한 과정과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준비되어 있다.

모든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www.jj.ac.kr)와 전주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jjuni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교 60주년은 우리 대학의 비전인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과 60년간 따뜻한 지지를 보내준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앞으로도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지는 기자(uptoillie20@jj.ac.kr)
송단비 기자(danbee425@jj.ac.kr)

개교 60주년 기념사



사랑하는 전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총장 박진배입니다. 올해는 전주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먼저 이곳을 터전으로 삼아 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1964년에 설립되어, 진리·평화·자유 의 교시와 영성·인성·지성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하여 왔습니다. 60년 동안 우리 대학의 대내외적 위상은 눈부시게 높

아졌습니다. 교육과 연구는 물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국고 사업과 교육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학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08년부터 13년 연속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3회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과 지방대학특성화 사업(CK-1),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고 2018년에는 인문학국플러스(HK+), 2019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의 활약은 여러분도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3유형)에서 모두 최고의 등급을 받음으로써(1유형 S등급, 3유형 A등급) 총 사업비 약 160억 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받는 큰 성과를 올렸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에서 호남제주권 유일하게 '고도화형', '광역형'에 모두 선정되는 등 우리 대학은 구성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6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혁신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JJ VISION 2030을 통해, 우리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학생성공과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핵심 가치, '적성과 실용', '창의와 혁신', '소통과 상생'을 실현함으로써 학생성공과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거점사립대 1위, 기독교 명문사학, 전북도민에게 사랑받고 지역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대학, 미래사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진리와 자유, 평화의 정신을 품고 한 시대를 걸쳐 천천히, 오래도록 지역과 함께 해왔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긴 세월 써내려 온 역사의 오랜 가르침을 기억하며 좀처럼 바래지 않는 빛들로 걸어온 60년, 그리고 세계로도 약하여 더 깊게 더 넓게 세계로 나아가 100년 후 우리 대학의 미래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주대학교라는 배가 올바른 목적지로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빛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과 60년, 세계로 100년
전주대학교 총장 박진배

외식산업조리학과 SUNRISE 팀, 청년키움식당 한 달간 오픈

우리 대학 외식산업조리학과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SUNRISE'팀이 전주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역전광장 사거리 인근에서 '청년키움식당'을 운영한다. '청년키움식당'은 4월 한 달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무일인 일요일을 제외한 점심시간에 방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청년키움식당 지원사업'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팀은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고, 직접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피드백과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향후 창업 실현에 유리한 정보와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메뉴는 직장인이 많은 상권임을 고려하여 한식으로 구성됐다. 현재 준비된 메뉴는 두 가지로, '뚝배기 김치찌개'와 '콩나물 불고기'가 있다. 음식을 주문하면 메인 요리와 밥, 냉국, 반찬이 함께 구성된 정갈한 한상차림이 제공된다. 모든 메뉴는 만 원이 넘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한 끼 식사가 가능하다.

식사를 마치면 간단한 후식과 함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가 지급된다. 이는 식사 공간, 메뉴 구성, 제공 시간, 맛, 가격,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

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매장 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청년키움식당에서 주방 전반의 운영을 맡고 있는 소산 학생(외식산업조리학과 2)은 "학생들끼리 뭉쳐 식당을 운영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인 만큼 다들 즐겁게 임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오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주문 시 에브리타임 앱에 'SUNRISE 오픈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보여주면 캔 음료를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 '청년키움식당'의 외부 모습과 주 메뉴이다. (사진: 권주익 기자)

개교 60주년 기념, 다시 태어난 잔디 구장



지난 3월 26일, 우리 학교 A구장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인조잔디 구장 및 풋살장 개장식이 진행됐다. 개장식은 약 30분가량 진행됐으며, 교무위원회 위원 및 학생회 6명, 축구 학과 교수 및 학생 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박진배 총장은 "학생들이 새롭게 단장한 잔디 구장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학업을 이어나가면 좋겠다. 또한, 구장 신설을 위해 고생해 주신 시설지원실과 학사지원실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는 축사를 했다. 더불어, 커팅식과 기념 촬영, 시축을 진행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인조잔디A구장과 B구장, 풋살장은 재학생에 한해 매주 추첨을 통해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다. 추첨은 매주 수요일 13시 30분에 학생지원실에서 진행되며, 추첨일 기준 그 다음 주 평일 18시~20시 또는 평일 20시~22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실(220-2163, 2819)에 문의하면 된다.

| 마경진 기자(alfpwnsg12@jj.ac.kr)

등록금 걱정, 장학금으로 덜어낸다

가계에 부담이 된다면 장학금이 열쇠

장학금은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해 주는 장려금이다. 등록금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면 장학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 대학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크게 국가, 교외, 교내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외 장학금은 여덟 가지다. 국가근로 1차와 2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국가보훈장학금,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이 이에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장학금마다 다르며, 4월과 10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가 달라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장학금으로는 1차와 2차, 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 국가우수 장학금이 있다. 전자의 경우 1차는 11~12월과 5~6월, 2차는 2~3월과 8~9월에 진행된다. 후자는 3~4월, 두 달에 걸쳐 접수할 수 있다.

교내 장학금은 총 여섯 종류다. 장애인 자녀, 장애대학생,

특수 환경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 있고, 이는 재학생은 1~12월, 신입생 및 편입생은 3~4월에 신청할 수 있다. 수퍼스타(동문)자녀 장학금은 4~5월에만 이뤄지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대학을 졸업한 부모를 둔 학우에게 적용된다.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재단우대장학금은 영생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생들만 신청 가능하며, 이 외에도 가족 2명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일 시 해당되는 가족 장학금,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한 장학사정관 계장학금, 신입생 중 기숙사 입사자를 위한 학업장려지원장학금도 있다.

자격조건(가능 학과 및 성적 조건 등)과 자세한 사항은 한 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ko/main.do>) 및 모바일 앱, 전주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jj.ac.kr/jj/>)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간 | 최소담
편집장 | 강수아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개교 60주년 기념, 우리 학교 재학생 인터뷰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과 60년, 세계로 100년’이라는 슬로건과 홍보물을 볼 수 있다. 우리 대학은 1963년 5월 5일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이념으로 개교해 올해 60주년을 맞이했다. 신문사 기자들은 개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재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전주대학교’ 오행시를 만들어보았다. 학생들이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자.



김닛시 학우
(영어영문학과 4)

Q. 학교와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A. 제 기억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1학년 때 대동제 가요제에 합격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휴학하기 전, 많은 학우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져 아쉬웠지만, 복학하면서 다시 활발해진 학교를 보니 기뻐했습니다.

전 매일이 고비입니다
주저 앉을 만큼 고비입니다
대 학생들 전부 그럴것죠
학교를 꼭 가야 하는 거라면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Q.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18학번 이승제입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네요. 졸업 전에 좋은 추억 남기게 해 주신 전주대 신문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6년 전 입학했을 때부터 축제, 코로나 시기의 복학, 여러 학교 프로그램, 다른 과로의 전과 등이 생각났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중앙동아리 BIC에서의 모든 날인 것 같습니다. 처음 입학해서 아무것도 모를 시기에 좋은 형, 누나들, 동기들을 만나 학교생활의 팁과 재미 등을 배우고 처음 대학생이 된 기분을 느끼며 엄청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대학교 시험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 많이 활용하지 못한 게 지금도 많이 아쉽네요. 작년에는 제가 동아리 회장을 했는데, 처음 맡아보는 직위에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좋은 동생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따라와 주고, 같이 힘을 합쳐줘서 많은 행사와 동아리 운영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6년을 한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이 되어 지금도 그들과 학교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 왔기에 만날 수 있는 인연이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며 잘 지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과 기회를 주신 전주대학교에 감사드리고, 남은 1년도 열심히 다니면서 마지막 한 페이지를 예쁘게 장식하겠습니다.

전 전주대학교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이자
교육자들이다



이승제 학우
(환경생명과학과 4)

Q. 학교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것이 있나요? 있다면 이유도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원하는 진로가 없어 방사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들과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학문에 흥미가 생겼고, 지금은 군무원 방사선사에 관심을 두고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 국에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모인
대학교는
학교 캠퍼스마저 예쁜
교육의 명소 '전주대학교'



최윤서 학우
(방사선학과 2)

개교 60주년 기념, 우리 학교 재학생 인터뷰



노현직 학우
(사회복지학과 3)

Q.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20학번 노현직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저라는 사람의 가능성이 대학 이전의 학창 시절보다 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고창군에서 보냈는데, 시골이다 보니 행동반경과 만나는 사람이 다른 시에 비해서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좁았고, 나라는 사람의 능력도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주대학교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생각도 다양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고를 졸업하여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식이 다소 투박했는데, 이것 또한 대학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제 의견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잘 피력하는 대화 방식을 터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주대학교는 저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줬으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전주대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주대학교
주 변은 꽃과 좋은 시설, 그리고 다양한 편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 학의 낭만이 가득하고
학 학생들이 멋지며 아름답다
교 수님과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분들이 누구보다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는 따뜻한 분들이라 전주대학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Q.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A. 제가 3학년이다 보니 진로나 취업 부분에서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다 막힌 부분에 있어서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 후배 친구들이 진로 관련으로 질문을 하면, 아직 나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단계이기에 선배, 인생 형으로서 해 줄 수 있는 조언이 없을 때,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들이 많아질 때, 스트레스도 쌓이고 뇌를 지배하려고 하는 안 좋은 생각들을 조절하는 것에 힘이 들어 지치는 날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한번 떠올린 힘든 생각은 바로 머리에서 지우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오랫동안 지속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항상 저를 인정해 주고 믿어주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그렇게 얻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노력을 계획하고, 생각하며 힘든 생각을 덮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전 (저는)
주 로 힘들면
대 충 식사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학 업 스트레스 감소와 체력 증진 그리고
교 육 받은 내용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맛있는 한 끼를 먹습니다. 학우분들도 힘들다고 대충 먹지 마시고, 꼭 맛있는 한 끼 챙겨주세요



김성빈 학우
(스마트미디어학과 3)

Q. 60주년을 맞이한 전주대학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전주대학교는 시설 및 장학금 제도가 잘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소하게 원하는 점이라면, 동아리 지원의 확대입니다. 대학 시절은 특히나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기에 동아리 활동이 제격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전주대학교의 동아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에 동아리 축제, 활동 지원 등 동아리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전 주대학교,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곳
주 변의 풍경이 시간을 잊게 만드는 곳
대 학 내에서 다양한 학문과 문화가 함께하는 곳
학 생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함께 성장하는 곳
교 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곳



정미진 학우
(영화방송학과 4)

VISION 2025+, 발전하는 학교

▶VISION 2025+

우리 대학 재학생이라면 학교 곳곳에서 ‘교육가치창출 1위, 기독교명문사학’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학교의 비전이 무엇 인지는 대부분 알고 있으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대학의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VISION 2025+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까지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 이념 아래 ‘실천하는 봉사인’, ‘학습하는 교육인’, ‘도전하는 전문인’을 인재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2017년에 세운 중장기 발전 계획이 ‘VISION 2025+’이다. VISION 2025+는 대학발전위원회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거친 후, 대학과 지역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최종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후, 2020년 4차 산업혁명 및 고등 교육정책 등을 반영하여 개선됐으며, 최종적으로 ‘JJ VISION 2025+’라는 계획이 수립됐다.

VISION 2025+의 주요 내용에는 전략목표를 이루기 위한 3대 전략 방향과 9대 전략과제가 있다. ‘꿈이 있는 대학/동행하는 대학/역량 있는 대학’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미래지향적 교육’, ‘실용적 연구 및 산학협력’, ‘전략적 행·재정 체계’라는 3대 전략 방향이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9개의 전략과제, 29개의 세부과제가 있다.

본 기사는 3대 전략 방향과 9개의 과제를 바탕으로 VISION 2025+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한 과제에 대해 다룬다.

▶미래지향적 교육

3대 전략 방향 중 ‘미래지향적 교육’은 VISION 2025+에서 가장 우선 투자 된 과제다. 대학의 중심은 교육이기 때문에, 재학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과제 또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해 세운 3개의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사 제도 및 교육 환경 개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구축’, ‘진로지도 및 취·창업역량 강화’다. 이에 따라, 교육 만족도 등을 성과 지표로 활용해 12개의 세부 과제 도 수립했다.

먼저 ‘학사 제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에는 학사 제도 개선, 학생역량 관리, 교육 환경 개선이 있다. 이 중 ‘학사제도 개선’을 위해 비대면 수업 제도화를 위한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정, 마이크로 전공 제도 운용을 통한 전공 학문 분야 확장 및 다학제적인 학문 접근 기회 확대를 추진했다. ‘학생역량 관리 및 인증’ 과제는 교양 교과, 비교과 및 학생 자율활동 영역 (StarT)을 포함한 Superstar 인증 제도 시행, 학생역량개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학생의 핵심 역량 수준 파악을 통해 수행했다. 또한 스마트 러닝 플랫폼 고도화, 공개 강의 콘텐츠 확대, 데이터 기반 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 과제를 수행했다.

다음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에는 기초 학습역량 (교양) 강화, 실무 능력(전공) 강화, 자기 주도적 학생역량(비교과) 강화 등이 있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외국어 교과목 수준별 교육 및 전공학과 중심의 분반 배정을 통한 학생 선택권 보장·확대, 수퍼스타칼리지 내 연계·융합 전공 확대 운영, 다 전공 이수 비용 상향, 대학의 SUPER 핵심 역량 평가 도구 개발 등을 추진했다.

‘진로지도 및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에는 진로지도 및 상담체제 구축, 취업 및 창업 지원 체제 개선, 글로벌 역량 강화가 있으며, 과제 수행을 위해 학과별 커리어 로드맵 수립을 통한 체계적 진로 지원,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 사업 등을 추진했다.

▶실용적 연구 및 산학협력

‘실용적 연구 및 산학협력’은 교육과 연구의 균형, 지역 연계를 위한 과제다. 이를 위한 전략과제는 ‘연구 지원 환경 강화’, ‘전략사업 중심 산학협력’, ‘지역 사회와의 동반성장’이다.

먼저 ‘연구 지원 환경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에는 사업기획 및 지원 체제 구축, 연구진흥 제도 개선, 연구 인력 풀 확충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단 운영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사업개발, 연구업적 및 연구 윤리 지원 서비스 도입, 탄소·농생명 분야 등 전략적 특성화 분야 대학원 육성 등을 추진했다.

‘전략사업 중심 산학협력’을 위한 세부과제에는 정부 기관 및 산업체 네트워크 강화, 지역전략사업 관련 연구기능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인력 양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재교육을 위한 전북 중소벤처 리더스 포럼 운영, 지역 내 기업과 대학 간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제 등을 수행했다.

비전	교육가치창출 1위, 기독교명문사학		
전략목표	꿈이 있는 대학 / 동행하는 대학 / 역량 있는 대학		
전략방향	미래지향적 교육	실용적 연구 및 산학협력	전략적 행·재정 체계
전략과제	-학사제도 및 교육환경 개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구축 -진로지도 및 취·창업역량 강화	-연구지원 환경강화 -전략사업 중심 산학협력 -지역재산의 산업화	-행정지원 체제 개선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재정건전성 확보
세부과제	학사제도 개선 및 엄격한 운영 등 11개	사업기획 및 지원체제 구축 등 9개	직무분석을 통한 행정조직 개설키 등 9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세부과제에는 지역 전략산업 분야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우수 기술 개발 투자 및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있다. 이를 위해 탄소, 농생명, 문화콘텐츠 분야 기술사업화 및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했으며,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대학리빙랩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관련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전략적 행·재정 체계

‘전략적 행·재정 체계’를 위한 전략과제에는 ‘행정 지원 체제 개선’,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재정건전성 확보’가 있다.

먼저 ‘행정 지원 체제 개선’의 세부 과제에는 직무분석을 통한 행정조직 재설계, 행정서비스 만족도 100% 달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 표준화 및 직무 분석을 실시했으며, 개인별 교육 및 경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전문가 양성체제와 교육행정 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에는 평가 및 지원 체제 구축, 핵심 성과지표 관리, 책임 경영 체제 구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서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반기별 부서 실행과제를 점검하고, 부서장 중심의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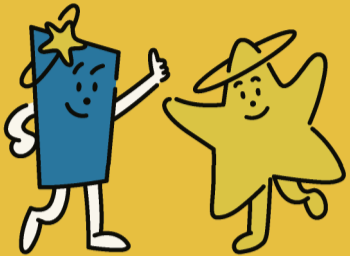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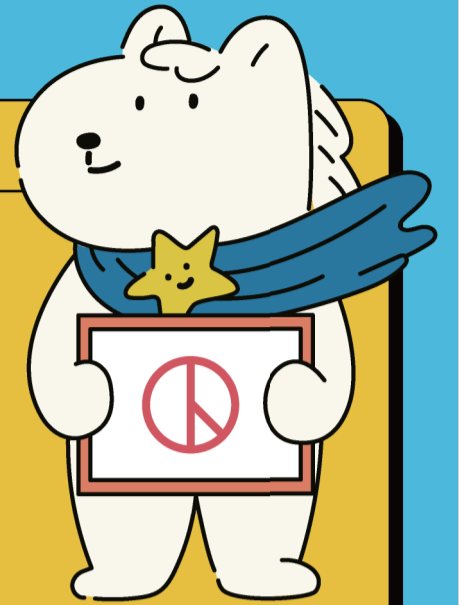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과제에는 중장기 재정 요소 예측 및 대응계획 수립, 수입 증대 및 지출 감소 방안 마련, 전사적 자원관리 체제 구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장단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사업 예산 구조 확립, 자율적 자산관리 및 물품 재활용 제도를 통한 예산 낭비 최소화, 대학 종합행정 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행·재정 체제 효율화, 시설물 상시 안전 점검을 통한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했다.

▶발전하는 학교, 재학생의 관심도 필요해

우리 대학은 VISION 2025+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인권센터를 신설했고,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본사업 선정, 2022년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수요맞춤성장형 선정, 2023년 제29차 한국리빙랩네트워크 포럼 개최,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 평가 최고 등급 S등급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졸업생 취업률은 61.56%에서 68.30%로 7%가량 상승했으며, 장학금 지급률과 기부금 모금 실적은 각각 18.05%에서 20%로, 9.25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상승하며 재정 안정성을 갖추었다. (2016년 대비 2022년 데이터 비교)

현재는 VISION 2025+에 이어 VISION 2030을 계획하며 다음 발전 단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이 어떤 비전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학생은 매우 적다.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통해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모았으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이 극히 드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는 앞으로 학생의 의견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재학생 또한 애교심을 갖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발전 양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년도 학생자치기구 보궐선거 종료

RE:BORN “중앙동아리 농촌 봉사활동 부활, 월례 행사 개최”, 한별 “한마음 체육대회 및 ‘치유 축제’ 개최”... ‘관록의 지도력’ 귀추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진행된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보궐선거에서 중앙동아리연합회 ‘RE:BORN’ 선거본부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한별’ 선거본부가 당선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중앙동아리연합회 ‘RE:BORN’ 선거본부가 유권자 수 93명 중 투표자 수 45명, 득표 수 총 45표로 100% 찬성을 받아 당선됐고,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한별’ 선거본부가 유권자 수 562명 중 투표자 수 226명, 득표 수 총 220표로 97.35% 찬성으로 당선됐다.

제39대 김딴시 ‘RE:BORN’ 중앙동아리연합회장은 제38대 중앙동아리연합회 ‘YUEIL’ 재무관리국장과 2024년도 신입생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기획단 중앙동아리팀장을 역임한 실무형 지도자다. 찬성 100%의 이례적인 득표율에서는 ‘중앙동아리 농촌 봉사활동’, ‘분과별 맞춤 L.T.’, ‘월례 행사’ 프로그램 진행, 동아리 홍보 편의 증대, 학생회관 내 공용시설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한 김 학생회장이 이끌 ‘RE:BORN’ 학생회를 향한 학생들의 신뢰가 엿보인다.

기호 1번 제39대 RE:BORN 중앙동아리연합회

리본 “다시 태어날 우리의 선물같은 이야기”

메인 공약

- RE:농활**
RE: Rural volunteer
4년간 사려깊은 농촌봉사활동을 중앙동아리 회원만을 위한 농촌봉사활동으로 부활시키겠습니다.
- 실시간 커뮤니티 개설**
Open real-time community
학생회 국별 진행사항, 예산, 동아리별 행사, 복지활동 전역 등 회원 동아리분들이 항상 알고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개설하겠습니다.
- 분과별 맞춤 L.T.**
Customized L.T. for each department
각 동아리마다 특색이 다른 만큼 분과별 맞춤 L.T.를 준비하겠습니다.
- 실 틈 없는 리본**
Utilizing RE: BORN
매월 새 리본 RE: BORN만의 행사와 회원분들의 참여에 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세부 공약

- 홍보**
홍보의 소지자 동아리 소개만 개성
- 시설**
시설 공유시설 개편, 별첨 작성해본 불만사항에 정답 표시
- 소통**
Communication
학회 17팀 운영 및 개성 국별 진행사항 공개
- 복지**
Welfare
재학생에게 동아리 지원 확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제1대 학생회 ‘한별’을 이끌 이수현 학생회장은 문화융합대학 제6대 학생회 ‘FLOW’ 운영부원 및 제48대 총학생회 ‘Be ONE’ 교육정책국 차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 학생회장의 ‘한별’ 학생회는 신설 학부 초대 학생회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한마음 체육대회’와 ‘치유 축제’ 등 학부 행사의 기틀 마련과 복지 서비스 및 분실물 안내 서비스, 몰래카메라 단속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찬성 97.35%의 표는 이와 같은 이력과 공약에 학우들이 보내는 믿음의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전주대학교 제1대 한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한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우 여러분과 빛나는 우리 빛을 비추는 우리 한결기의 빛이 되어주는 한별”

정 후보 이수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스마트미디어학과 20학번

부 후보 이성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20학번

MAIN
메인공약

- 한마음 체육대회**
몸도 마음도 한마음이 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농촌 봉사활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우 여러분과 마음과 일손을 모아 따뜻한 손길로 봉사활동을 하며 소통하고 좋은 추억을 심어드리겠습니다.
- 소용 투영**
학기별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와 공약 이행을 공개하여 투명한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만들겠습니다.
- 치유 축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우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학우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심어주겠습니다.
- 소용 소식통**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예브리타임을 개설하여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UB
세부공약

- E-sports 대회 개최**
- 복지 서비스 시작**
- 분기 소식**
- 별자리 달력**
-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 몰래카메라 단속**
- 분실물 안내 서비스**

보궐선거 출마 선거본부 전체 당선을 끝으로 구성이 완료된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단은 향후 약 1년간 각 학생자치기구 소속 부서의 학생들을 위해 봉사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한 학우들이 지난 5일~6일 사전투표와 4월 10일 선거일 투표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했길 바란다.



▲ 중앙동아리연합회 보궐 선거에 투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보궐 선거 안내를 듣고 있는 모습이다.

기사 | 이견우 기자(virtuoso@jj.ac.kr)
디자인 |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개교 60주년 기념 '사·자·성·어' 프로젝트 시행, 가슴 따뜻한 사연 전해...



전주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사·자·성·어'(사랑 실은 자동차·자전거 타고 성품채플, 기독교 교과목 어디든 간다)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사자성어'는 재학생들의 성품을 빚어주고, 부모님의 존재가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어 사랑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어 이번이 세 번째를 맞은 프로젝트다. 이번에는 성품채플뿐만 아니라 '기독교 윤리와 적성' 수강생들이 사연을 신청하여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다.

부안에 사는 한 학생은 "아버지날마다 돈이 없어 편지만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선물도 드리고 싶어서 신청했다"라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교수님들은 학생의 사연과 함께 선물을 부모님께 직접 전달하였다.

이 사연을 받은 어머니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동적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과 교수님,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전주대학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번 행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선교지원실 오예찬(ssd5205@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교직원 및 학생 중 건강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진리의 샘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권위의 체중을 달아보는 방법은 직위의 높이나 연봉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짊어진 책임의 질량과 범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권위는 고위직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흘린 희생이 몇 리터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만 먹고 권리만 내세우고 자랑만 앞세우고 책임은 요리조리 회피하며 극강의 미꾸라지 신공을 발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교계나 법조계나 공직계나 회사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의 개수를 꼼꼼히 계수하고 가용한 활동비의 인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출장을 빌미로 근무일을 연차처럼 사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라 기술을 태연하게 꺼냅니다.

어디를 가든 권위의 공백이 심각합니다. 책임이 미움을 받아 조리돌림 당하는 우리의 시대에 세상의 죄책을 모조리 어깨에 거신 예수님의 십자가 행보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십자가의 도에서 찾습니다.

세속이든 종교든 공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책임을 짊어지면 권위가 될 것입니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일에 민첩한 사람은 권위를 스스로 내던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탓이라고 여기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숨넘어가는 억울한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안으면 교회의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문

개교 60주년, 세계로 달려갈 전주대학교를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주대학교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학교에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전주대학교의 학생들에게 더욱 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지식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주대학교의 교수님들에게 더욱 더 헌신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항상 뜨거운 심장으로 학생들과 함께하시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더욱 더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화합과 협력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주대학교가 지역사회에 더욱 더 그리스도

의 향기를 전달하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60년 전에 건립된 전주대학교가 건학이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미래 100년을 향해 복음을 품고 지역과 함께 세계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문택 교수
(선교봉사처장·인문콘텐츠대학 신학과경배찬양학과)

기자칼럼

연대책임: 한국적 집단주의



이건우 기자
(Virtuoso@jj.ac.kr)

필자는 '한국성'과 거리가 대단히 먼 시민이다. 제1언어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다. 사과의 문자화가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한다. 대인 관계망 속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약 1:6이다.

이런 필자에게 '한국적 집단주의'는 언제 조우해도 생소하다. 생소한 것은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 오랜 관찰의 일환으로, 본 칼럼에서는 두 가지 대조적 사례를 통해 한국적 집단주의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Yangju Highway Incident(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에서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앞서 갓길로 보행 중이던 신호순(14), 심미선(14)을 깔고 지나가 두 명 모두 즉사했다. 같은 해 11월 23일, 미군 사법정은 당시 장갑차 운전자 마크 워커(Mark Walker)와 페르난도 니노(Fernando Nino)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한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범국민적 반미 투쟁을 촉발했다. 약 10만 명의 인파가 광화문에서 반미 촛불 집회를 이어갔고,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George W. Bush)를 비롯한 미국 고관들의 사과와 유감 표명 및 다양한 배상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 시기에 형성된 반미 감정은 이후,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Virginia Tech shooting(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4월 16일이라는 날짜에 2014년의 기억만을 가졌을 보편적 20대와는 달리 필자에게는 그로부터 7년 전, 2007년의 기억이 함께 있다. 2007년 4월 16일 오전 7시 15분경부터 9시 51분경까지, 버지니아 공과 대학(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재학생인 재미 교포 조승희(Seung-Hui Cho)가 반자동 권총 두 정으로 난사해 32명을 살해하고 29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한국 및 미국 내 한인 공동체에서 집단적 책임론이 대두되어 촛불 예배나 집회 등이 이어졌으나, 처음부터 인종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조승희 개인의 일탈, 총기 관리의 실패, 대학생 및 시민 전반의 정신 건강 복지 체계 미흡 등으로 원인을 규정한 미국 사회는 전술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다. 언론은 이를 '집단적 비애 및 참회의 감각(The collective sense of sorrow and penitence)'이라고 진단했다.

두 사례에서 필자가 포착한 '한국적 집단주의'는 혈연주의에 기반한 속인주의의 확장이며, 카뮈와 사르트르가 제시한 서로 다른 내집단 구성 원리 중 카뮈의 '소통과 협력'보다 사르트르의 '폭력'이 주로 기능하는 형태다.

상기의 '한국적 집단주의'에 기반한 대표적 현상으로 필자는 '연대책임'을 상징하고자 한다. 필자가 정의하는 '연대책임'이란 확장적 마을 공동체 정신의 실행으로, 개인 실책에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분담하는 형태다. "어린이 한 명의 육성을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의 극단적 실천 사례다.

'연대책임'의 실제 작동 원리는 상기 두 사례의 심층 분석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 사례의 경우는 '연대책임'을 외집단인 미국에 제시한 예고,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사례는 '연대책임'을 광의의 한국인인 재미 교포에게까지 확장하여 내집단인 한국에 적용한 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사례에서 미국 사회는 한국의 '연대책임'과 그 배경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탓에 한국 사회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 한국의 '연대책임' 집단주의는 그 성격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지만, 외집단이 내집단을 공격한다는 인식 하에 결속을 재확인하는 장치로 사용될 때는 공격적으로 변모함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 사례에서 관측할 수 있다. 일례로, 장기 체류 혹은 귀화 외국인은 타국과 한국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이 소속된 한국인 공동체에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등의 질문으로 그 '한국성'을 시험받는다. '연대책임'이 공격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이다. 중립성과 모호성을 버리고 진짜 한국인이 되어 인정받으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적으로 인식되고, 공동체로부터 도태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세계시민의 정신을 부정하고 분열과 반목을 초래할 뿐임을 적어도 외국인 유학생들과 동문수학하는 우리 대학 학생이라면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에 있어 중국의 공장이나 사막이 핵심 원인이라면, 단순 '중국 대상 분풀이'나 '지도자 험담'은 문제 해결에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일본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하여 그들 개인에게 사과의 책무를 부여할 수도 없다. 연대의 대상인 동료 세계시민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성인의 책임을 다하자.

기자칼럼

디지털 디톡스, 이제는 알고리즘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양예은 기자
(kikiyye@jj.ac.kr)

현대인에게 '스마트폰 없이 24시간을 살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90%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스마트폰 자체가 이미 상징적으로 우리의 신체 일부가 되었으며, 지하철과 버스 등 모든 곳에 와이파이기가 있어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보급이 우리에게 편의만 가져다주었을까? SNS의 발달로 침대에 누워서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초등학교 동창의 여행 사진을 볼 수 있는 세상. 인스타그램에는 셀럽들의 멋진 사진이 넘쳐나고, 유튜브에는 앞다투어 재미있는 영상이 업로드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같은 SNS 만 번갈아 즐겨도 하루가 훌쩍 지나갈 정도로 새로고침 한 번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진다. 과연, 이러한 정보 중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몇이나 될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세상, 우리에게서 무분별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필터가 있는가?

최근 각종 열애설과 바이럴 광고, 연예인과 정치인의 논란 등이 SNS를 뒤덮고 있다. 꼭 알아야 할 뉴스나 정보도 있지만, 알맹이 없는 정보가 대부분이다. 종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웹서핑을 하며 가십거리를 접하는 하루. 소위 '도파민 중독'에 빠지면 자극에 익숙해져 정적인 활동이 어려워진다. 두 시간짜리 영화에 집중할 수 없어 10분 요약 영상을 찾고, 책을 정독하는 것이 귀찮아 요약 블로그를 검색한다. 집중력과 문해력이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숏츠나 릴스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러한 '도파민 중독'에 반하여 생겨난 개념이 '디지털 디톡스'다. 디지털 거리 두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개념은 잠시라도 인터넷을 멀리하지는 운동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인터넷 없이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한 시간이라면 어떨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디지털 디톡스는 자극에 익숙해진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이다.

디지털 디톡스는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디톡스 시간에는 인터넷을 멀리한다. 스마트폰 전원을 끄거나 방해금지 기능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든 환경을 만든 후,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혹은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적정 시간이 넘으면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또한 방법이다.

필자는 기사 작성을 위해 하루 두 시간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했다. 두 시간 동안 인터넷을 멀리한 채 독서와 산책을 했다.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이

잠시 들기도 했으나, 알고리즘이 아닌 내 손과 발로 삶을 살아간다는 기분

에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본인의 의지로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 상담을 위한 카운슬링센터가 있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좋다.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가볍게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싶다면 도서관의 북모닝, 북나잇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또한 추천한다. 하루 20분 동안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독서를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부담 없이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할 수 있다.

현대인의 뇌 피로도가 날로 높아지는 세상. 문명의 이기에 휩쓸리지 않고, 다스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도파민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삶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면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는 건 어떨까?

교수칼럼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을 아세요?



김병오 교수
(미래융합대학 미네르바학부)

화요일과 목요일 밤이 되면 우리 학교 자유관은 환하게 조명을 밝힌다. 저녁 7시가 되면 낮선 이들이 가방을 메고 캠퍼스에 나타난다. 이내 자유관 강의실 곳곳에서 배움의 열기가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한다. 토요일에도 새로운 풍경은 반복된다. 평일 동안 일터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던 이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말마다 배움을 찾아 자유관의 문을 열어젖힌다. 이러한 모습은 예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낮선 풍경이다. 스무 살 앓던 표정에서부터 마흔을 전후한 노련함, 환갑을 넘긴 여유로운 풍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지금 전주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올해 교육부 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 예산 총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평생교육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것이다. 세부 예산을 보면 개별 항목마다 다양한 사연들이 담겨 있겠지만, 예산 편성의 핵심 목적은 명확하다. 대학에 평생학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 혹은 '도래해야 한다'는 당위를 국가가 앞장서 선포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겪으면서 평생직장의 의미가 퇴색되는 한편,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 예산 편성이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선진국(Developed country) 범주에 속하게 된 우리나라에서 '선진국 어디는 어떻게더라'라는 식의 문제 해결 관점을 갖는 것은 과거만큼의 설득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선진적 국가와 우리의 현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포착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찰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가령 이런 것 말이다. '서유럽과 북미 지역 유수의 대학에는 충분한 사회생활을 통해 자신

의 취향·적성을 확인한 뒤 대학에 입학하는 이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이른바 세계적 명문 대학에도 직장을 다니며 대학 생활을 병행하거나 서른이 넘어 대학에 입학하는 이들이 흔하디흔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참여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성인 학습자와 재직자 신분의 학생 수 증가 추세이다. 대학의 관점에서 특기할 것은 세계의 수많은 대학이 4년제 정규 과정 외에 사회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고등교육의 지역 확산을 위한 변화 노력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술혁신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직업 주기가 단축되면서 재교육과 향상교육 참여를 향한 사회적 압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 이에 따라 개인과 대학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인 학습자와 재직자 주도의 고등교육 참여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저녁에 자유관을 찾는 이들, 주말에 캠퍼스를 누비고 다니는 이들은 우리 학교 미래융합대학 소속의 재학생들이다. 전주대학교는 2020년 전라북도 지역 최초로 재직자와 성인 학습자에 특화된 단과대학인 미래융합대학을 설립했다. 처음에는 4개 학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8개의 학과 및 전공과정으로 확대하면서 도전적인 대학 운영을 펼치고 있다. 전북 지역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배움의 열정을 가진 많은 재직자와 성인학습자들이 이 도전에 함께하고 있다. 이는 OECD의 교육 통계가 보여주는 바, 대학의 새로운 책임과 기술혁신이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변화에 대한 전주대학교의 능동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 밤, 그리고 주말마다 자유관에서 낮설고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이유다.



기자의 시선

자유관 벚꽃길

평화관 벚꽃길

자유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학우들

봄꽃축제를 즐기는 지역주민들

Jeonju University Job Plus Center,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ublic Institution Recruitment Briefing' held

Jeonju University(President Park Jin-bae) University Job Plus Center announced on April 6th(Saturday) that it hosted a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ublic Institution Recruitment Briefing" at the Jeonju University Star Center No. 107. The event was attended by more than 60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working at public institutions in th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briefing session took place in the form of a relay from 9 AM to 5 PM. Working-level officials from seven public institutions i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cluding the Jeonbuk Bio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gency and the Korea Food Industry Cluster Promotion Agency, participated to share information on job preparation that job seekers were curious about, such as on-site roles and recruitment procedures.

Kim Sun-ah, a fourth-year food nutrition student who attended the job briefing session for public institutions i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aid, "I had a hard time preparing for employment because I only had a vague goal of securing a job at a public institution in the province, but this opportunity was very helpful."

"I learned about various public institutions that I hadn't usually come into contact with, and it was very beneficial as they explained in detail what the recruitment process was like for each institution," said Kim Bum-chang, a fourth-year police student.

Shin Sook-kyung, head of the University Job Plus Center, mentioned, "Th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additionally supporting the 'Customized Talent Training Program for Public Institutions' so that young people in our region can consider the pending issues necessary for regional development together and strengthen their motivation for employment."

article Student employment office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Holds the 14th Nightingale Oath Ceremony

Jeonju University(President Park Jin-bae) Department of Nursing held the 14th Nightingale Oath Ceremony at 2 p.m. today(5th) at the Superstar Hall of the Student Hall.

The Nightingale Oath Ceremony is a sublime ritual that reflects on the spirit of sacrifice and service that burns the body through the candlelight ignition ceremony and pledges to move forward as a full-fledged nurse who practices the care of love and service by inheriting Nightingale's sublime spirit and mission.

The event was attended by President Park Jin-bae, Han Byung-soo, head of the Graduate School of Missionary Theology, Won Jong-im, dean of the medical school, Kim Mi-eun, head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ficials and nursing students.

Kwak Cheong-bin, a student, expressed his feelings about participation, saying, "It was a time to get together with my colleagues before going to clinical practice, and I will become a nurse who cares for the patient without losing my mind for the oath ceremony."56 third grade nursing students pledged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s professional nurses by inheriting Nightingale's sublime sacrificial spirit through candlelight ceremonies and oaths.

President Park Jin-bae encouraged, "I congratulate the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 noble ceremony of taking their first steps as professional nurses, and I hope they will grow into a true nurse who fulfills their responsibilities as a professional and constantly works hard, and even embraces the patient's painful heart."

Meanwhile, Jeonju University's Department of Nursing said that the Nightingale oath ceremony is more meaningful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admissions has increased by 31 from 2021 to 2023, and a total of 81 students are being recruited.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oath ceremony announced that they will practice at Jesus Hospita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Daejain Hospital for eight weeks from April 29.

article a medical school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Job Plus Center 'JJ Job Supporters (9th term), Outstanding Company Monitoring Group (3rd term) in the province' will be held at the launching ceremony

Jeonju University(President Park Jin-bae) University Job Plus Center announced today(3rd) that it held a launching ceremony for JJ employment supporters(9th) and the monitoring team(3rd) of outstanding companies in the province to promote youth policy employment and raise awareness of outstanding companies in the province.

The opening ceremony was held in the order of youth employment policy, supporters' promotion strategy, the current status of excellent companies in the region, and sharing the schedule of job fairs, including the oath of each representative.

The province's outstanding company monitoring team(3rd phase) will establish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by strengthening links with outstanding companies in the region, such as corporate tours and job interviews. They will also conduct online and offline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outstanding companies in the province, and finally select 30 people through the second screening process.

JJ Job Supporters(9th) selected a total of 52 people through the second screening process to raise awareness of youth-friendly policies and support projects that are helpful to job seekers in the province. They will actively promote online and offline activities for nine months using vlogs, card news, and on-site events.

Jeong Se-yeon, a third-year business administration student who participated in the supporters, said, "We will actively promote youth employment policies and programs at the University Job Plus Center, as well as excellent local companies that are helpful not only to enrolled students but also to local young people."

Shin Sook-kyung, head of the University Job Plus Center, said, "We hope that you will work with a sense of purpose and responsibility to convey the information and benefits of major youth policies and excellent companies in the province at the level of young people through the activities of JJ job supporters and the monitoring team of excellent companies in the province."

Meanwhile, the University Job Plus Center said it will play a leading role in delivering youth employment services so that many young people can set up early careers and systematically prepare for employment. This will be done by effectively delivering customized employment services for students selec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r the 24th school year.

article Student employment office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Sign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greement With PAT.R Co., Ltd. for Future Food Tech Industry Development

Jeonju University(President Park Jin-bae) Medical School announced today(1st) that it has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food tech company PAT.R Co., Ltd. to advance the future food tech industry.

PAT.R, a subsidiary of Hyosarang Medical Group, is a startup company that develops and manufactures food for patient treatment. The agreement aims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Medi Food and Food Tech industries, which are focused on future patient treatment foods.

The agreement will enhance mutual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echnology and manpower exchange, manpower training, joint infrastructure use, and collaborative technology development and support. This cooperation will leverage the strengths of both the university and the company.

The signing ceremony took place in the conference room of PAT.R Co., Ltd. Key figures from both institutions attended, including a professor from Jeonj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Kim Jung-yeon, CEO of PAT.R Co., Ltd.

Under this agreement, the two institutions will collaboratively promote technical and academic exchange, support product R&D, develop functional raw materials, and work on patent acquisition to bolster the food technology industry. They have also agreed to enhanc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through joint use of research facilities, equipment, an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dditionally, this collaboration will serve as a vital foundation for various industry-academic projects deemed necessary by both institutions, including seminars, councils, corporate employee education, and graduate-linked employment.

Professor Lee Sang-sang, chairman of the Jeonbuk branch of the Korean Food Tech Council and a member of the Food and Nutrition Department at Jeonju University, remarked, "Both organizations will collaborate on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itiatives related to food tech to develop the food industry. This collaboration will utilize regional specialized agricultural and life resources and help expand the base of the food market by integrating new food technologies."

Through this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greement, Jeonju University and PAT.R Co., Ltd. are pois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and nations and lead the innovative growth of the food technology industry.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benefit the local economy and enhanc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food technology industry.

article a medical school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全州大学运营外国留学生JJ-Friends寄宿家庭项目



全州大学国际交流院12日发布消息说，为了帮助外国留学生尽快适应韩国生活，举行了JJ-Friends寄宿家庭结缘仪式。

全州大学通过多种方式和渠道帮助外国留学生适应在韩国的学习和生活。这次，大学员工与外国留学生进行1:1结缘，帮助留学生提高韩语能力并适应大学生活。

参加这次结缘的员工(mentor)和留学生(mentor)以1:1方式共结成了10组。他们将在2024学年第一学期定期见面，从韩语对话到韩国文化体验，以及家访等多方面、多形式地进行交流，并相互帮助。这次结缘意味着在大学工作的员工成为导师，可以实质性地帮助留学生解决在留学生活初期可能遇到的实际困难。

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教授表示：“我非常支持每一位离开原有的生活环境，挑战新环境的留学生同学。希望这次结缘能帮助解决大学生活中可能遇到的困难，也非常希望这次结成的缘分能持续到毕业。”

中国留学生夏翊茗(经营学专业)表示：“很感激能在自己留学的大学里遇到导师。因为语言的极限和文化差异，主动与韩国人交流还是有一定困难。通过这次结缘，遇到了可以帮我解决困难的贵人，我会通过老师们的帮助更好地适应韩国生活。”

全州大学国际交流院表示，计划将继续扩大结缘。不仅在大学内部成员寻找结缘对象，还要扩大范围，在地方社区也寻找志愿者，让他们都能与外国留学生进行1:1结缘。

全州大学与淳昌郡联合举办文化体验活动



据全州大学15日消息，全州大学国际交流院于13日针对30名中国交换学生，与淳昌郡(郡守：崔永日)联合举办了文化体验和学习活动，不仅向留学生们介绍了传统的酱料制作过程，还亲手制作品尝了使用辣酱制作的韩式炒年糕。

参加这次淳昌“制酱日”活动的中国交换学生体验了多项韩国的风土人情，包括观看打击乐表演、和淳昌的酱料大师/技师一起制作酱料、豆酱的表演、民俗大同祭祀、品尝用辣酱调味的韩定食、现场炒年糕制作体验以及徒步游览刚泉山等。

参与此次活动的中国交换学生何炆(人工智能专业)表示：“虽然中国和韩国的文化有许多共同点，但来到韩国亲身体验后，就更清楚地了解了两国文化的差异。通过品尝代表韩国的酱料和传统食物，以及徒步游览刚泉山，更深入地理解了韩国料理的精髓、韩国文化的魅力。”

全州大学酒店管理系教授、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表示：“我们将尽最大努力，通过我们大学对留学生的优质教育，以及与地方政府及其地区社会支持安居项目的合作，让全州成为最佳留学城市、渴望居住的城市。从而吸引优秀的全球人才来到我们这里，从入学到毕业乃至就业，全方位服务的全球本土化大学。”

全州大学正在扩大提供100%英语授课的英语授课专业，并计划吸引来自英语圈国家以及全世界的优秀外国学生。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주요 프로그램 일정

날짜	장소	프로그램
4. 26.(금)~4. 27.(토)	대운동장	전주국제영화제 야외상영
4. 29.(월)~5. 2.(목)	스타센터 도서관	도서관 개방 축제
4. 30.(화)	스타센터 온누리홀	자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포럼
5. 1.(수)	대학본관 박물관	박물관 특별전 개막식
5. 2.(목)	예술관 아트홀	개교 60주년 기념식 행사
	스타센터 온누리홀	명예박사 수여식
	학생회관 앞 로터리	축하 주간 행사(헌혈캠페인, 아름다운 가게, 태권도 시범단 공연, CCM 콘서트)
	풋살장	총장배 풋살대회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로컬벤처 프로젝트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모델 사회적기업과 목적 및 운영원리는 유사하지만,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과 달리 로컬벤처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 2024. **05. 15.**(수) **24:00**까지

개요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되는 창업 가능한 사업 사업아이템 발굴

공모분야 1) UN-SDGs, K-SDGs 관련분야
2) 자율주제: 일상(사회) 및 지역의 문제해결 분야(제한 없음)

공모자격 사회문제해결에 관심있는 전주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누구나
1) 재학생과 교직원이 팀을 구성해 신청 시 우대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팀은 신청 불가)
2) 재학생은 팀이 아니어도 단독으로 신청 가능

모집일정 모집 설명회 5월 9일(목) 12:00
접수 마감 5월 15일(수) 24:00까지 (이메일 제출 : goho829@jj.ac.kr)
사업 발표 평가 5월 20일(월) 16:00

모집팀 3팀

지원 금액 총 15,000,000원 (각 5,000,000원)

문의 예술관 B110호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063-220-3171 / goho829@jj.ac.kr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홈페이지 참고

